

대법, 이재용 사건 법리검토 착수

주심 조희대 대법관 배정·대법원 내규 따라 3부로 전산 배당 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3부가 맡게 됐다.

7일 대법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상고심 주심으로 조희대 대법관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3부는 조 대법관을 비롯해 김창석 대법관과 김재형 대법관, 민우속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상고심 사건에서

차관성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차 전 대법관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며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주심인 조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함께 근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또 김창석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임기가 겹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관은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차 전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에 남아 있는 고영환·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과 근무한 기간이 겹치는데, 이들은 1·2·3부 각 소부에 모두 포진

해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6년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사건은 하급부에 배당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법조비리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주심 대법관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의도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핵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1심은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했고 상성에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농진청, 풍년농사 기원 밀밭 밟기 체험행사 개최

농촌진흥청이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밀밭 밟기 체험행사를 7일 개최했다. 전북 전주시 성덕동 밀 재배단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영농조합법인 전주우리밀과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밀의 중요성을 알리고 밭의 생육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우리밀 소비자와 재배농가, 전주시 소재 초등학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농진청은 보리나 밀 등 겨울작물 밟기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나 어린이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밀 자급률은 1.8%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소비활성화를 통한 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집호 작물육종과 과장은 "밀밭 밟기 체험행사가 일반 소비자는 물론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밀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산 밀의 자급률 향상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도로공사, '음주운전·안전벨트 미착용' 집중 단속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고속도로 내 음주운전과 안전벨트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나섰다.

도로 전북본부는 7일 호남고속도로 여산(순천방향·천안방향) 휴게소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도로공사가 2018년도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됐다. 특히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음주운전 사고 예방 및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안전의식 공감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진행됐다.

이에 음주단속을 비롯해 휴게소 이용 고객에게 불꽃신호기와 같은 안전용품, 물티슈, 리플렛 등 홍보물품을 지급했다.

/뉴시스

아웃도어업계, 운동 욕구 자극 마케팅

세련된 색상 돋보이는 스타일리시 애슬레저룩 선보이

아웃도어업계가 운동 욕구를 자극하는 화보를 공개하며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선호하는 스타를 내세워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7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웃도어 업계는 화보를 통해 세련된 색상이 돋보이는 스타일리시한 애슬레저룩을 선보이고 있다.

네펜은 배우 전지현과 함께 스타일리시한 아웃도어 화보를 선보였다. 전지현의 탄탄한 바디라인과 여성미를 강조했다. 운동을 자극하고 있다. 전지현은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로 깃털 아웃도어룩을 감각적으로 연출했다.

K2는 전속모델 수지의 2018 봄·여름 시즌 아웃도어 화보를 공개했다.

수지는 파스텔 핑크와 코랄, 옐로 우 등 봄을 연상케 하는 따뜻한 상큼한 색상의 재킷과 신발 등을 착용했다.

K2는 슬림 핏, 파스텔톤 제품 등 여성성이 강조된 디자인의 제품들로 여성 고객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 브랜드들도 봄을 맞아 애슬레저 화보를 공개하고 있다.

뉴발란스는 우먼즈 모델 김연아와 함께 봄 시즌 캠페인 '코어 밸



런스(CORE BALANCE)' 화보를 공개했다. 코어 밸란스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온전한 밸런스를 찾아 나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운동을 통해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헤드는 가수 선미와 함께 레트로 무드의 스포티룩 화보를 선보였다. 화보 속 선미는 레트로 무드의 스포티룩을 다채롭게 선보이며 봄·여름 시즌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선미는 슬더 라인의 레터링 테이프와 비비드한 컬러배색이 매력적인 저지의 팬츠를 착용, 90년대 레트로 감성의 트랙수트 룩을 연출하거나 러블리한 스포티 룩을 보여주기도 했다. /뉴시스

3월 주택사업 체감경기 개선... 계절적 영향

3월 주택사업자들이 느끼는 건설경기가 주택시장 상승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3월 전국의 HSBV 전망치가 91.5로 한 달 전(78.3)에 비해 13.2포인트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지수는 작년 6월 이후 9개월만에 90선을 회복했다.

HSBV전망치가 85 미만이면 하강, 8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본다. 지수는 주산연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소속된 주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조사해 발표한다.

지수가 개선된 데는 ▲지난달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연휴에 따른 시장 관망세가 마무리 된데다, ▲3월 주택

사업 경기가 통상 전달 보다 개선되는 계절적 영향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3월 HSBV전망치가 100으로 가장 높았다. 한 달전에 비해 5.8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세종 96.7 ▲경기 95.1 ▲대구 92.3 ▲부산 87.8 ▲광주 87.8 ▲인천 87.5 ▲강원 69.2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2월) HSBV 전망치(78.3)에서 실적치(80.4)를 차감한 체감경기값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로써 체감경기값은 작년 9월 이후 6개월째 마이너스를 유지했다. 주택사업자들이 내다 보는 시장 전망이 반년째 실적치를 밑돌 정도로 부진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혁신형 중소기업 공동 R&D에 최대 7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개발(R&D)에 최대 7억여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 지원규모는 중기부 147억원 특허청 4억원 등 총 151억원이다. 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 중 3곳 이상이 모인 중소기업 협력체다.

공동 R&D에 적합한 협력 파트너를 매칭해주고 협업과정에서 우려되는

성과배분 등의 갈등방지를 위해 협력계약서 작성 등을 최대 6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특허청과 함께 특허 빅데이터 분석(IP-R&D)을 통해 유망 R&D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R&D 기획단계부터 맞춤형 특허 전략 지원을 최대 7억1000만원까지 제공한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